듣는 강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부활 제3주일
(생명 주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요한 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20,31)이라는 말로 마무리된 듯합니다. 그런데 21장이 부록처럼 덧붙여진 것은 우리를 포함한 후대의 독자들을 겨냥해서 가필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고자 가필을 했을까요?

오늘 복음에 따르면 베드로 사도를 필두로 여섯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밤새껏 허탕질만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물가에 ‘낯선 분’이 계셨고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는 낯선 분의 말씀에 따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제자들은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됩니다.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손과 옆구리에 난 수난의 상처를 보았음에도(요한 20,19-20.26-27)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부활이란 실재는 감각기관을 통한 물리적 검증으로는 확인 불가능하고 오직 신앙의 눈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실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자 한 것이 첫 번째 가필 이유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듯 생각을 바꾸라는 뜻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가필 이유는 이것입니다. 부활 당일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뵌 제자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성령을 통한 죄의 용서를 선포하라.’는 사명도 받습니다(요한 20,22-23).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시작하기는커녕 ‘이전의 생활-고기잡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물질의 결과는 어땠으며,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허탕이었고 하나는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듯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일깨움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아내라는 일깨움일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1961~. 드류 신학대학 교수)는 지금 기독교의 심각한 질병은 ‘예수 결핍 장애(JDD : Jesus Deficit Disorder)’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문제는 ‘십자가의 고통을 거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새겨볼 직한 말입니다.

김순곤 비오 신부 | 양덕동본당 주임

주일 전례

제 1 독 서	사도 5,27ㄴ-32.40ㄴ-41
화 답 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제 2 독 서	묵시 5,11-14
복 음	요한 21,1-19 또는 21,1-14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홍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사랑(3)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한다. 그러나 글자가 다르듯이 그 뜻이 서로 다르다. 사랑하는 것이 '너' 중심적인 것에 반하여, 좋아하는 것은 '나'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

좋아하는 것은 항상 취사선택取捨選擇할 수 있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다. 또 '나' 중심적이기에 이런 경향으로 흐를수록 이기주의자利己主義者가 된다. 그래서 좋아하다 싫어지면 떠나거나 버리게 된다. 다시 다른 대상을 찾는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취사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전체적이고 항구적이다. 또 '너' 중심적이기에 이런 경향의 사람들은 박애주의자博愛主義者가 된다. 싫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끝까지 함께한다.

예를 들어 보자.

원하는 시계 하나를 사 차고 다닌다. 그러고 몇 년이 지나 색이 변하고 시간이 잘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가?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그 시계를 버리고 다른 시계를 산다. 그렇지만 시계를 사랑하는 사람은 수리점에 가서 수선해 다시 사용한다. 한마디로 좋아하는 것은 '놀부와 같은 삶'이며, 사랑하는 것은 '흥부와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흥부처럼 착하게만 살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 삶을 탓하기도 한다. 또 가난에 찌들어 힘들어하고, 형 놀부에게 구박받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와 같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교과서를 통해 배우면서 어떠했는가? 어려움 속에서도 진한 인간애人間愛를 발휘하며 사는 흥부가 끝에 가서 행복해지는 모습에 감동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보냈다. 또 한편으로는 놀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놀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흥부처럼 살기로 다짐했다.

좋아하는 삶의 방식은 '놀부 형形', 즉 like style이다. 사랑하는 삶의 방식은 '흥부 형形', 즉 love style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놀부가 되어가고 있다. 놀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 사람도, 또 그렇게 배운 사람도 그러하다. 이것이 문제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경제 성장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사회 풍조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이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좋아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리하여 이제는 가족끼리도 정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이 드물다. 또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모습도, 길 가는 나그네를 불러들여 숙식을 제공하는 모습도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를 낳아 길러준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 교회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부적天賦的으로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안 하고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사회에서 칭찬과 박수를 받으며, 상이나 표창을 받는 자 중에 '나' 중심적인 '놀부 형形', 즉 like style로 산 사람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모두 '너' 중심적인 '흥부 형形', 즉 love style로 살아온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서

유시연 레아 소설가/ 가톨릭문인회

가브리엘 신부님은 로마 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 논문을 마무리 중이며 광주교구 소속이다. 아델 수녀원과 아시시 수녀원 숙소 두 곳에 묵을 수 있도록 단초를 놓아주셨는데 식사대접을 하고 싶어 꽃의 거리에서 만났다. 점심 후 그분의 안내로 로마 3대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과 커피를 파는 곳을 들렀다. 아이스크림과 커피점은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붐볐지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신부님의 재빠른 동작으로 달콤한 젤라또와 커피를 맛볼 수 있었다. 깜삐 돌리오 언덕은 황제가 충성스러운 군인들로부터 승리의 전장으로부터 돌아온 장군들로부터 사열을 받던 곳이다. 언덕 중심의 광장에는 명상록의 저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기마동상이 서 있다. 깜삐 돌리오 광장에서 의미 있는 시간은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가 갇혔던 감옥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돌로 된 지하 감옥은 어둡고 추웠다. 벽면과 바닥에 깔려 있는 돌에는 녹색식물이 자라고 있었다.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는 벽화에는 베드로와 바오로, 예수와 성모마리아를 표현한 장면이 있는데 거의 지워지고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다.

베드로와 바오로가 갇혔던 로마 지하감옥

시내 골목을 걸어 성 체칠리아 성당에 발길이 머문다. 성가를 시작하기 전, 성녀 체칠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는 음악의 주보성인이 묻혔고, 그분의 유해 위에 세워진 성당이다. 성당에는 수녀들이 촛불을 밝히고 저녁기도를 바치고 있다. 제대 밑에는 박해 당시 카타콤베에서 발견된 체칠리아 성녀 유해를 본떠 만든 모형 조각상이 있다. 젊음의 광장과 유대골목 게토를 지나 원형이 보존된 1800~2000년 된 다리 위를 지나 테베레 강을 사이에 두고 귀족들의 건물과 서민들이 살던 골목을 지난다.

콜로세움 근처 비아 거리에 있는 FMM 수녀원에 머무는 이틀 동안 수녀님들이 라떼라노 대성전을 꼭 가보라고 추천한다. 군인들의 검색을 통과하여 들어선 대성당 안에는 성인들의 조각상이 배치되어 있다. 열쇠를 든 베드로와 펜과 종이책 혹은 칼을 든 바오로 조각상을 우러러본다. 벽면 곳곳에 걸린 성화의 배경은 어두운 암갈색 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은 르네상스 이전 그림이라는 걸 알려주는 표식이다. 원장 수녀의 허락으로 점심 저녁을 수녀님들과 같이했다. 식사가 끝나고 원장 수녀의 요청으로 방명록 노트를 작성한다. 식사 도중에 이냐케 수녀가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아오스딩과 나를 소개한다. 수녀님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힌다. 인도, 미국, 스페인, 필리핀, 베트남, 폴란드, 일본, 한국, 헝가리,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 세계 80여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녀들이 모여 간간이 웃음꽃을 피운다.

로마 FMM 수녀원 성당 제대

한국에서 20년을 산 스페인 이냐케 수녀와는 삼십여 년 전의 인연이 있다. 수녀원에서 하루가 저물어간다. 다음날 아침, 수녀들이 교황님을 알현하러 단체로 외출하고 남아 있던 이냐케 수녀와 작별을 한다. 일생동안 여기를 기억하세요. 일생동안 여기를 기억할 거예요. 이냐케 수녀가 말하고 내가 대답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서' 로마에 온 후 로버트 푸르스트의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생각해 본다. 꿈이었을까.

기행 에세이집 『이태리에서 수도원을 순례하다』에서 발췌

작은 것들에 대한 감수성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이게 이렇게 작았나? 그때 그렇게 젊었나? 그게 그리 좋았나?” 어려서 보았던 것들을 커서 다시 보았을 때 보통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 어릴 적 ‘만주벌판’만큼이나 광활했던 학교 운동장이 어른이 되어서는 시골집 마당처럼 좁아 보이고 옛날의 높고 거대했던 마을 뒷산이 지금은 동네 공원마냥 아담하게 느껴지는 거다. 학교 다닐 때 할아버지로 보였던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겨우 사십 대 후반의 아저씨였고 군대 갔을 때 백전노장 같았던 선임하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삼십 대 중반의 젊은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란다. 옛날에는 그렇게 재미있었던 TV 만화가 지금은 이렇게 유치했나 싶고 학교 앞 문방구의 그 맛있었던 ‘불량식품’은 지금 맛보면 뭐 이런 걸 먹었나 싶다. 그러고 보면 나이로든 경험으로든 어릴 적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대단하고 신기하게 보이나 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이와 어른 사이의 이러한 ‘인식의 차이’에는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입장의 차이’이다. 즉 인식의 차이만큼이나 아이와 어른의 입장 또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속도는 어른보다 아이의 눈에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인식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 면에서 실제로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입장의 차이로 연결된다.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따로 설정하는 이유는 이처럼 자동차의 속도가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라고 하는 입장의 문제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러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 선정성과 폭력성의 등급을 매기고 성인용과 아동 및 청소년용을 따로 구분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나이 혹은 경험에서 비롯된 수많은 인식의 차이들은 “어릴 때는 그랬지”라며 지나쳐갈 추억이 아니라 “어릴 때는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입장의 문제 곧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문제인 것이다. 이 세상은 어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아이와 어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다. 경력자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초심자들의 세상이기도 한 거다. 따라서 어른들에 비해 더 크고 높고 빠르고 강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입장을 어른들은 마땅히 존중하고 이해해주어야 하고, 경력자들에 비해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이 더 어렵고 고될 수밖에 없는 초심자들의 처지를 경력자들은 헤아리고 배려해주어야 한다.

이는 부자와 가난한 자, 몸이 성한 사람과 불편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등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 모든 관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내용이다. “아니꼬우면 너도 나처럼 되시던가!”라거나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서로를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과연 어른들에게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이 아이들의 눈에는 대단하고 신기하게 보인다는 이 사실이 아이들의 미숙함을 의미하는 것일까?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릴 적의 인식과 지각이란 그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여 성숙한 어른이 되면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는 ‘어린마음童心’일 뿐이니까! 그러나 정말 그런 걸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루카 10,21) 어지간한 것들은 거의 다 하찮아 보이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안목이 아니라 사소하고 평범한 것도 대단하고 신기하게 여기는 철부지들의 감수성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을 드러내신다. 세상의 작은 것들에 대한 아이들의 이 감수성은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닌 그저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알아채고(1열왕 19,11-13 참조) ‘겨자씨’와 ‘누룩’처럼 작고 ‘밭에 숨겨진 보물’처럼 감춰져 있는 하늘나라를 발견해 낼 수 있는(마태 13,31-33.44 참조) 특별한 재능이다. 이 재능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신 ‘하느님 당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참새 두 마리가 한 닢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마태 10,29-31) 우리의 하느님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주시는가(시편 8장 참조)! 결국 우리가 세상의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대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여 행하기 위함인 거다.

크고 높고 빠르고 강한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고 낮고 느리고 약한 것들을 하찮게 여긴다. 게다가 무엇이든 하찮게 여기는 것이 곧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 양 허세를 부린다. 이런 세상에서 작고 약한 사람들은 그저 값없고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는 빈민, 난민, 장애인, 병자의 경우만이 아니다. 심지어는 한 가족 안에서도 작은 것은 하찮은 것이 된다. 똑같은 아이라도 눈에 보이는 귀여운 아이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배 속의 아이는 그 처지가 다르다. 아동학대로 아이가 죽으면 살인이지만 낙태로 아이가 죽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이런 세상에서는 작은 것 속에 감추어진 소중한 가치들이 모두 폐기처분되어 사라져버린다. 그러니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늘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같은 하느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있겠는가? 정녕 하느님 나라를 위한 회개가 참으로 절실한 때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마태 18,3)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태 19,14)

“야 하늘나라 가셨나봐!”

얼마 전 동창 신부 아버지의 장례 미사 때 성당 유치원에서 놀던 아이들이 운구행렬을 보며 했던 말이다.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눈물이 났다. 내가 들은 가장 짧고 가장 훌륭한 장례 미사 강론이었다. 정말로,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 어른들만 잘 모른다.

출처 : 월간 생활성서

기억할 선종 사제
이재철(아드리아노) 신부
2006년 5월 3일

본당 재정업무 지도방문
일시: 5월 4일(수)
본당: 장재동/ 하대동/ 문산

교구/본당

2022 상반기 만남의 잔치
청년성서모임 만남의 잔치에 교구의 모든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5월 1일(주일) 10:00~15:30
장소: 밀양 명례성지
참가비: 5천 원
문의: 010·2961·9918

임마누엘 장학회
일시: 5월 3일(화) 11:00
장소: 교구청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5월 4일(수) 10:30
장소: 대건성당

신임 교리교사 연수 1과정
일시: 5월 7일(토)~8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예비신학교, 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시: 5월 8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5월 1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5월 기도모임
일시: 5월 2일(월) 14:00-성체조배
14:40-미사(주례: 정윤호 신부)
15:10-회의
장소: 완월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교구봉사자
문의: 회장 010·3903·8234

기 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5월 8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나, 너 우리!' 성격 찾아 떠나는 MBTI 가족여행
일시: 5월 28일(토) 10:00~13:00
장소: 평생교육 젊음의 집 (2인 기준 4만 원)
대상: 초등, 중학생 자녀와 부모
문의: 평생교육원 젊음의 집 055·255·8295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 하는 산들평화순례피정
자연순례: 5월 18일~20일/ 5월 23일~25일/
6월 20일~22일
성지순례: 5월 12일~15일/ 5월 28일~31일/ 6월 4일~7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일시: 5월 10일~12일/ 5월 16일~18일/
5월 22일~24일/ 5월 26일~28일/
5월 30일~6월 1일/ 6월 4일~6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6월 11일(토)~12일(주일)/
7월 9일(토)~10일(주일)
3박 4일- 5월 5일(목)~8일(주일)/
4박 5일- 5월 23일(월)~27일(금)
8박 9일- 5월 11일(수)~19일(목)/
6월 1일(수)~9일(목)
40일: 9월 14일(수)~10월 23일(주일)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재속 프란치스코 지원자 모집
모집기간: 4월~6월
과정: 지원자반 1년 교육 후 입회
대상: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과 형제적 사랑을 살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
문의: 010·5230·1420, 010·8782·9520

재속 프란치스코회 유프라(청년 모집)
모집기간: 4월~6월
대상: 신자 및 비신자로서 18~35세 미만의 미혼 남 여/ 태양과 바람 나무를 사랑하고 성 프란치스코처럼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젊은이
문의: 010·4557·5134, 010·6711·4014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시	원하는 곳	010·6608·3217(김종관 미카엘 신부)	ofmkvocation@gmail.com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매주 월, 목, 금요일 출발
■한국성지 167 완주
6. 6.(월)~9.(목) 인천·의정부교구 4일
6. 27.(월)~29.(수) 서울대교구 3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세계최초 음향표준 이어폰
당신이 꿈꿔왔던 감동의소리를 만나보세요
SONICAST direm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sonicast
(네이버에서 '소니캐스트'로 검색 가능)
대표 이사: 이의렬 대건 안드레아/ 055-288-3768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재속 맨발 가르멜회 마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모임-5월 16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010·8525·1150

나자렛 예수 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피정 또는 단체 피정(5명 이내)
교육: 교리 교육
장소: 본원 피정의 집(경남 창녕군 성산면 운봉길 25-12)
문의: 010·4686·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교구청 신축 추진위원회

후원계좌: NH농협은행 301-0293-9000-01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하나은행 160-910030-14104 (재단)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055·249·7121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음(전 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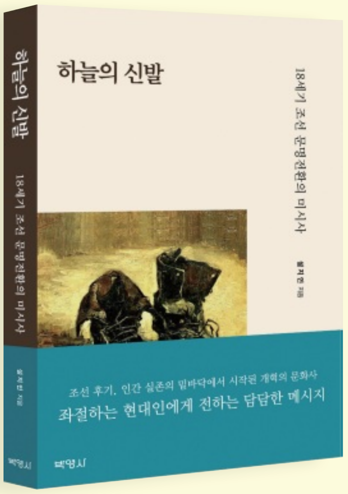
-마르코 복음 묵상

예수님의 복음,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누구나 기쁨을 찾고 의미를 물으며 산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면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을 선포하신 것이다.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이 '기쁜 소식'을 뜻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을 뜻한다는 것을 안다 해도 그 앎이 인생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복음으로 지은 옷을 입고 세상을 누빈다고 해도 내 몸에서 기쁨의 향기가 풍기지 않는다면, 그 앎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책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음-마르코 복음 묵상』(총 2권)을 쓴 이제민 신부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마르코 복음서를 읽어 내고 있다. 그가 1998년 광주가톨릭대학교를 떠나 구암동성당에서 예비신자 교리를 하던 시절, 예수님이시라면 그리스도교에 입문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을까, 고민하다가 손에 든 책이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고 또 가장 짧은 마르코 복음서였다. 복음서를 거듭 읽을수록 마르코의 복음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인생과 그분의 어록을 편집하여 전해 주는 책을 넘어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게 해 주는 책임을 알게 되었다.

- 출판: 북랩
- 페이지: 1권 546쪽 / 2권 594쪽
- 지은이: 이제민 신부(교구 원로사목자)



- 출판: 박영사
- 지은이: 설지인

하늘의 신발

18세기 조선 문명전환의 미시사

이 책은 조선에서 일어난 첫 번째 대박해인 신유박해를 다른 시각으로 조망한다. 기해박해와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 한국천주교회를 세운 주요 인물들의 여정을 국내외에서 구한 방대한 사료와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하여 그 속으로 끌려들어가 읽게 한다. 이벽, 이승훈, 강완숙, 황사영, 이순이·유중철 부부, 김재복(김대건 신부).

천주교가 문을 열어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인간학 안에서 미래를 본 이들 7명과 신앙 선조들이 자신들의 죽음으로 만들어 낸 변혁의 기록을 매우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이들의 삶은 지금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에 관하여 어떤 말을 걸어오는가? 천주교가 이끈 조선 안으로부터의 개혁의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빛을 비추는가? 5월, 순교자들의 모후이신 성모님과 함께 이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 볼 것을 권한다.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나자렛 예수 수녀회

사람은 누구나 따듯한 마음을 가진 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단어를 떠올려 보라 한다면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입니다. 성모님의 사랑 가득한 오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롤 모델이 되시는 '성모님'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성모님의 깊고 깊은 심연의 침묵의 그릇 속에는 매 순간 'Fiat'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의탁과 신뢰로 주님이 계신 곳에 늘 함께하신 지고지순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의 사랑 역시 성모님의 마음처럼 되돌려 받을 것을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게 하는 그리움입니다. 하지만 21C를 살아가는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교육 트렌드를 보면 모성애의 기준이 차별화되고, 퇴색이 되는 느낌이 들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주일학교 자모들을 대상으로 신앙과 인성교육을 6회기로 입문 교육을 한 후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을 8회기 동안 교육하면서 '엄마'라는 단어가 더 이상 온실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자녀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나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엄마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자녀에게 해 주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스스로 책임감을 지니도록 교육적, 정서적 방임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must be'에서 'being'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엄마들의 마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엄마들은 어릴 적 '엄마'에게 받았던 인간 본능적인 '모성애母性愛'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한 리필이 되는 순수한 사랑을 기억하며, 먼저 자신들의 자녀교육 트렌드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교육 참석자 중에는 첫아기를 출산할 예정인 스물셋의 그라시아 자매도 있었습니다. 그라시아 자매는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나 보육원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한 원망보다는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녀님들의 사랑 안에서 성장을 하였다는 것에 감사드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듣지도, 말을 할 수도 없기에 몇 달 후면 태어날 아기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교육 참석을 희망하였고 다행히 상대의 입 모양을 보고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마지막 날 참석자들은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결심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하였고, 그라시아 자매 역시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적은 기도문을 나에게 건네었습니다. 세상을 감싸 안은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던 예비 엄마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아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제 소리를 아기에게 들려줄 수는 없지만 아기를 향한 사랑이 아기의 마음에 평화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재작년 그라시아 자매의 아들 벤자민이 첫영성체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벤자민이 첫영성체를 준비하며 예수님께 드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 "사랑하는 예수님, 첫영성체를 하는 날, 예수님께 드린 기도는 꼭! 들어주신다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 저희 엄마는 귀가 아파서 듣지를 못해서 말을 배우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으로 제게 전해지는 엄마의 사랑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더 행복해요. 그런데 혹시 엄마 마음이 아프게 되면 엄마의 마음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예수님, 엄마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창 어리광을 부려도 시원치 않을 10살 소년의 소박한 기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 마음이지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마음뿐이란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편지였습니다. 벤자민의 편지를 통해 母子의 따뜻한 마음이 봄 햇살처럼 은총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짐을 느끼며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햇살 고운 봄날! 포근하고 따사로운 사랑의 이름 '엄마'를 조용히 부르며 모든 이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해드립니다.